

박진만 탈락...WBC 대표팀 확정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주축 '세대교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할 야구대표팀이 최종 엔트리 28명을 확정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센트럴 오아후 리저널파크에서 전지훈련 중인 대표팀의 김인식 감독은 23일 "오른쪽 어깨가 아픈 박진만(33·삼성)을 결국 엔트리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만이 엔트리에서 탈락하면서 조미의 관심을 끌었던 3루수 후보 최정(SK)과 이범호(한화)는 모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주전 유격수는 박기혁(롯데)으로 정리됐다.

김 감독은 지난달 중순 WBC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45인 로스터 중 여러 분실로 대표팀 합류가 좌절된 김병현(전 피츠버그)을 아예 빼고 나주환(SK)을 넣어 만일의 사태

를 대비했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WBC 조직위원회에 문의 결과 '최종 엔트리 제출 후 부상자가 생기면 예선전(3월5일) 직전인 3월3일까지 대체 선수로 바꿀 수 있다'는 답을 얻어 최종 엔트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한 2차 예비 멤버 31명 중 최종 탈락한 선수는 김병현(전 피츠버그)과 주포 이승엽(요미우리), 박진만 등 3명이다.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전사들이 이번 WBC 대표팀의 주축을 이뤄 완벽한 세대교체를 이뤘다.

3년 전 초대 대회에 이어 2회 대회 연속 출전하는 선수는 손민한 봉준근 정대현 오승환(이상 투수), 김태균 이진영 이범호(이상 타자) 등 7명 뿐이다. /연합뉴스

이승훈 쇼트트랙 3관왕

동계 U대회

이승훈(21·한국체대)이 2009 하얼빈 동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쇼트트랙에서 3관왕 기쁨을 누렸다. 또 남자 스키점프의 '간판' 김현기(26·대구과학대·하이원)는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승훈은 23일 오후 하얼빈 과학대 스키

이트장에서 치러진 남자부 1,000m 결승에서 1분28초064로 바스티유 기욤(캐나다·1분28초898)을 0.774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승훈은 지난 19일 1,500m 우승을 시작으로 전날 3,000m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나서 이날 금메달 한 개를 추가해 한국 선수단의 첫 대회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최경주 13연타 공동 3위

PGA 노던트러스트 최종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39·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오픈에서 시즌 처음 톱10에 올랐다.
최경주는 23일(한국시간) 토스엔젤레스 인근 리비에라 골프장(파71·7천29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3

개에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시즌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에서 공동 15위, 소니오픈에서 공동 12위 등 톱10 문턱에 그쳤고 AT&T 페블비치 내셔널프로오픈에서 공동 55위에 머물렀던 최경주는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연합뉴스

26일부터 강진군 일주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강진에서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가 열린다.

강진군은 23일 "오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제 56회 3·1절 강진군 일주 전국 도로사이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년 연속 강진군에서 열리는 도로사이클 대회는 48개 팀 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룬다.

2009년도 첫 전국대회로 치러지는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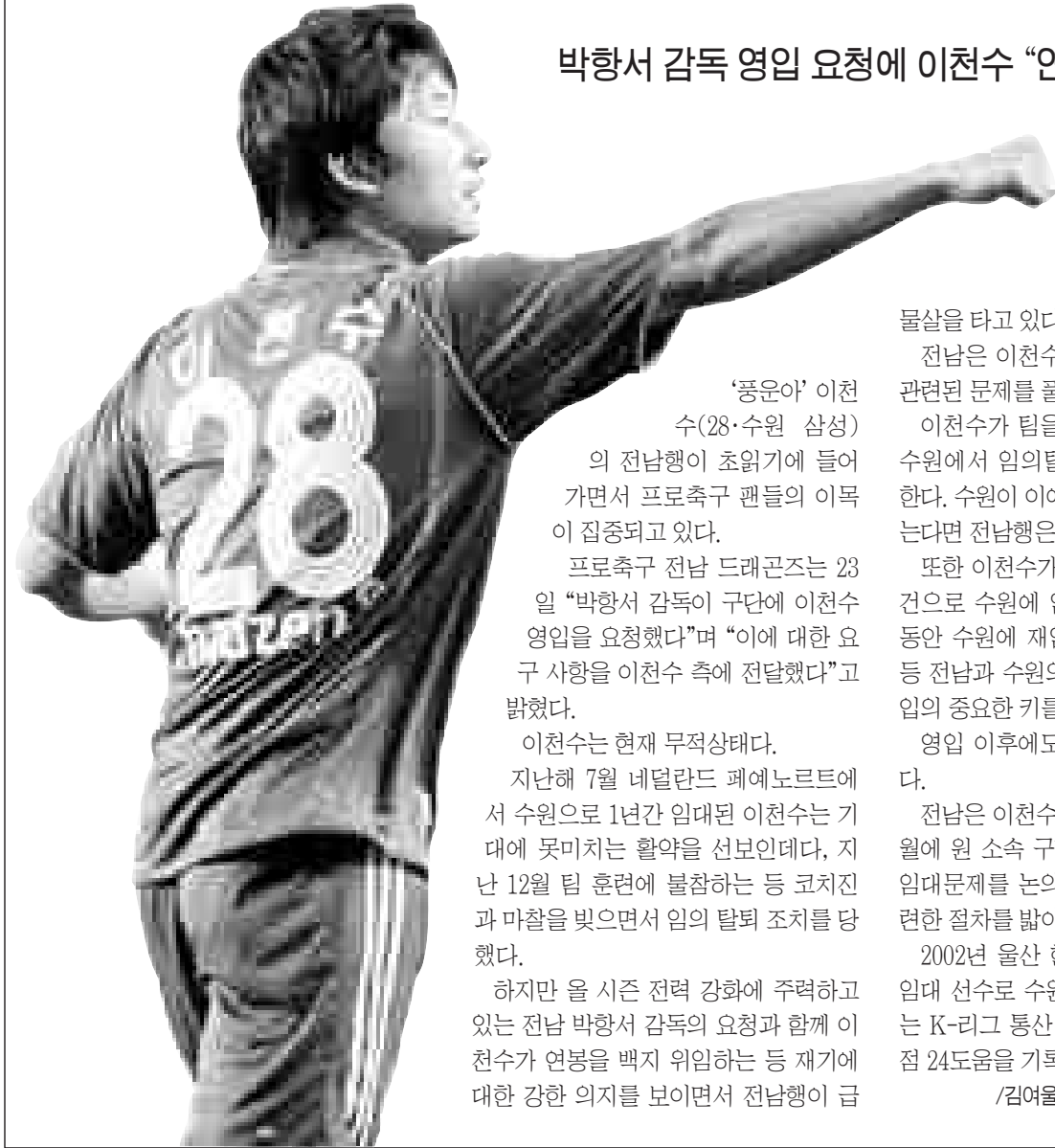
대회는 2009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및 세계 주니어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 대회, 2009 Tour de Korea 출전팀 1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다.

대회는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로 나누어 남녀 개인도로(총 연장 40km) 4경기, 단체도로(총 연장 60km) 4경기, 크리테리움(총 연장 1.3km) 4경기 등 12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l

이천수, 전남행 초읽기

박항서 감독 영입 요청에 이천수 "연봉 백지위임"



'풍운아' 이천수(28·수원 삼성)의 전남행이 초읽기에 들어 가면서 프로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는 23일 "박항서 감독이 구단에 이천수 영입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천수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현재 무적상태다. 지난해 7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수원으로 1년간 임대된 이천수는 기대에 못미치는 활약을 선보인 데다, 지난 12월 팀 훈련에 불참하는 등 코치진과 마찰을 빚으면서 임의 탈퇴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올 시즌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남 박항서 감독의 요청과 함께 이천수가 연봉을 백지 위임하는 등 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전남행이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은 이천수 영입을 위해 재임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천수가 팀을 옮기기 위해서는 일단 수원에서 임의탈퇴 처분을 철회해줘야 한다. 수원이 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남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천수가 6월까지 1년 계약을 조건으로 수원에 임대된 만큼 남은 4개월 동안 수원에 재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전남과 수원의 이해관계가 이천수 영입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영입 이후에도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전남은 이천수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7월에 원 소속 구단인 페예노르트와 추가 임대문제를 논의하거나 완적 이적에 관련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2년 울산 현대를 시작으로 2008년 임대 선수로 수원 유니폼을 입은 이천수는 K-리그 통산 104경기에 출전해 37득점 2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흔 담아 제2의 박지성 키우겠다"

흥명보 U-20 감독 기자회견



"틱 아드보카트 감독의 리더십과 펴 베어백 감독의 훈련 계획, 박성화 감독의 경험을 닮고 싶다"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새로이 축구인생을 시작하는 흥명보(40) 신임 감독이 자신의 흔을 담아 '제2의 박지성'을 키워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나섰다.

흥명보 감독은 23일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청소년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독 선임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지도자로서 첫발을 내디디고 더불어 개인적으로 제2의 축구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연말 여러 국내의 클럽에서 좋은 조건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지만 재종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거절했다"라며 "축구협회로부터 최근 청소년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고 나서 한국 축구에 봉사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흔쾌히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흥 코치는 U-20 대표팀 감독이지만 축구 협회가 올림픽 상비군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어서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도자로서 역할에 대해 "그동안 축구인생을 살아오면서 꿈꿔왔던 것들을 펼쳐 보이고 싶다"라며 "어린 선수들이 잘 자라 한국 축구의 미래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흔을 담아서 지도자 생활을 하겠다.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선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도자 경험이 짧은 지적에 대해 "물론 대표팀 감독은 경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험만으로 대표팀을 쉽게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팀을 극대화하고 선수의 잠재력과 팀워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자신했다.

월드컵 남북대결 4월 1일 밤 8시

대한축구협회가 오는 4월 1일 치러지는 북한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5차전 홈 경기의 kickoff 시간을 오후 8시로 확정했다.

축구협회는 23일 "북한과 최종예선 5차전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오후 8시에 시작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광실고 신상수 태권도 금

영광실업고 신상수 선수가 '제2의 문대성'을 꿈꾸며 태권왕에 올랐다.
신 선수는 최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4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라이트헤비급 결승에서 청주 신홍고 최근호 선수를 관정승(13-11)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영광초 2년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신 선수는 신장 192cm의 타고난 체격 조건에다 순발력이 뛰어나 '국가대표 0순위'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 정구연맹 양희성 회장

양희성 광주시 북구 의원이 24일 제6대 광주시정구연맹 회장에 취임한다.

양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배드민턴 협회 조호권 회장

광주시의회 조호권 부의장이 24일 제16대 국민생활체육 광주시배드민턴연합회 회장에 취임한다.

이날 오후 7시 취임식을 갖게된 조 회장은 "동호인들 중심의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전용 체육관 건립 등 실질적 지원과 배드민턴 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생체협 이사회·대의원총회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는 24일 제31차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오후 2시·생체협 회의실)와 대의원총회(오후 5시30분·프라다호텔)에서는 2008년도 회계·정기감사 결과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규약 제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서승원기자 swseo@



24일(화)
▲2009 핸드볼 큰잔치 여자부(용인시청·정읍시청)(13:50·SBS스포츠) 남자부(두산·충남도청)(15:30·SBS스포츠)
▲NH농협 08/09 V리그(현대캐피탈·신협상무)(18:40·KBS n스포츠)
▲08/09 프로농구(삼성·전지랜드)(18:50·SBS스포츠·MBC ESPN·Xports)

IONIA
무료체험단 모집

▶기간: 2009. 3. 1(화) ~ 2009. 3. 31(화)
▶대상: 20대 ~ 30대 여성
▶신청처: 02-552-527-3388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7443388by (주)행복출발

1위 무료상담 02-527-3388